

성인 남녀의 병리적 자기애가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성차를 중심으로*

최 단 비¹⁾

권 호 인[†]

본 연구는 남녀의 병리적 자기애와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 각 변인에 있어서 성차가 있는지, 매개 경로를 성별이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20대 성인남녀 381명을 모집하여 병리적 자기애, 거부민감성, 네 가지 유형의 데이트폭력 가해 경험에 대한 온라인 자기보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여성은 남성보다 자기애적 취약성과 거부민감성 수준이 높고 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 통제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분석 결과 병리적 자기애가 심리적 폭력,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부민감성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으나, 성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완전매개 효과를 보였다. 반면 병리적 자기애와 신체적 폭력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이 매개 경로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측정된 결과 자기애적 웅대성과 자기애적 취약성이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남녀 모두 병리적 자기애가 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을 촉진하며 이 과정에서 거부민감성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병리적 자기애가 거부민감성을 통해 통제행동 가해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유의하게 높아 매개 경로에 성차가 있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자기애적 취약성, 자기애적 웅대성, 데이트폭력 가해, 거부민감성, 성차

* 본 논문은 최단비의 2023년도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1)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석사 졸업

† 교신저자 : 권호인,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Tel: 063-220-4666, E-mail: hikwon14@jj.ac.kr

 Copyright ©2023,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과거에는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을 '사랑싸움'으로 치부하였으나, 최근에는 폭행·상해 수준을 넘어 살인 사건들까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안지은, 2022; 이재란, 정근선, 2020). 경찰청(2021)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 데이트폭력 신고 건은 19,940건으로 보고되었으나, 2021년에는 데이트폭력 신고 및 상담 건수가 46,687건으로 치솟았다. 그러나 연인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신고는 보복 및 사생활 노출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실제 발생 사건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홍영오 등, 2015).

세계보건기구는 데이트폭력을 연인관계 혹은 과거 교제 관계였던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심리적·신체적·성적 폭력, 통제행동으로 규정하였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0). 그 유형을 살펴보면, 심리적 폭력은 정서적 폭력이라고도 하며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등의 언어적 공격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거절하는 등의 비언어적 공격이 포함된다(Straus et al., 1996). 신체적 폭력은 상대방에게 의도성을 가지고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Straus et al., 1996). 성적 폭력은 상대방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요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위협적인 말과 행동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Straus et al., 1996). 마지막으로 통제 행동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관계를 이끌기 위해 상대의 특정한 행동을 못 하게 하거나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홍영오 등, 2015). 예를 들어, 상대의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고립되게 만들거나 옷차림이나 모임 등을

제한하는 것, 행동이나 상태에 대해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데이트폭력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폭력 범죄 중 하나이며(이영돈, 2018; 홍영오 등, 2015), 정서적 지지를 기대했던 대상에게서 받은 폭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폭력보다 더 심각한 대인관계 문제와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서경현, 2008; Aguilar & Nightingale, 1994).

이렇듯 최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적절한 예방과 개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데이트폭력을 발생시키는 요인 및 과정에 대해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으로 자기애(Narcissism)가 주목받고 있다. 적정 수준의 자기애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자기애가 지나쳐 병리적인 경향을 띠면 자신을 비현실적으로 과대평가하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나타내며, 대인관계의 갈등이나 부적응을 초래하게 된다(한수정, 권석만, 2010).

오랫동안 병리적 자기애가 웅대성이라는 단일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혹은 취약성을 동반한 두 개의 이질적인 구성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 논쟁이 되어왔다(양진원, 2012; 이선민, 2020). 이에 Pincus와 Lukowitsky (2010)는 자기애의 연속선적 특징을 강조하면서 자기애적 웅대성(Narcissistic grandiosity)과 취약성(Narcissistic vulnerability) 개념을 제안하였다. 자기애적 웅대성과 자기애적 취약성은 공통적으로 자신에 대한 과대망상, 특권의식,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착취하려는 경향을 보인다(Dickinson & Pincus, 2003). 그러나

자기애적 웅대성은 이상화된 환상에의 몰두, 과시적인 행동, 자기고양 전략, 우월성, 공격성, 강렬한 시기 등의 특징을 보이는 반면 (Akhtar, 2003; Pincus & Lukowitsky, 2010), 자기애적 취약성은 고갈되고 낮은 자존감, 무력함, 우울한 정동, 대인관계에서의 민감성과 자신이 필요로 하는 감탄을 받지 못할 때 수치스러워하면서 사회적으로 철수하는 양상을 보인다 (Akhtar, 2003; Pincus & Lukowitsky, 2010). 병리적 자기애의 두 가지 표현형은 연속선 상에서 공존하기 때문에 개인은 상황에 따라 웅대하거나 취약한 자기애적 상태를 번갈아 보일 수 있으며, 개인마다 특정 표현형이 지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Pincus et al., 2014).

자기애와 데이트폭력 간의 관련성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 (원선호, 배성만, 2020; Carton & Egan, 2017), 이는 병리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이 자존감에 손상을 입을 경우 그로 인한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격적 반응과 자기애적 분노(Narcissistic rage)를 보이는 것과 관련있다 (Kohut, 2009; Morf & Rhodewlt, 1993). 특히 자기애적 취약성과 유사한 개념인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분노를 더 많이 표출하고 (조은영, 곽은희, 2012), 데이트폭력 가해를 높게 보고하였다 (김시원, 박경, 2012; 이아람, 2018). 자기애적 웅대성과 유사한 개념인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친밀감보다는 자신의 위치를 승격시켜 줄 만한 사람들에게 더 끌리고 책임감이 낮은 특징이 있다 (Farwell & Wohlwend-Lloyd, 1998). 이처럼 데이트 관계에서 헌신적이지 못하고 계산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갈등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경숙, 2019). 더불어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특성 분노가 높으며 분노감을 외

부로 표출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특성이 있기에 (백승혜, 현명호, 2008) 데이트폭력 가해와 관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 연구에서 남성의 자기애 성향은 심리적·신체적 폭력 가해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던 반면 (서경현 등, 2010), 성폭력 가해와의 관련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김나은, 박지선, 2021).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기애 성향과 데이트폭력 간의 유의한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았다 (Warkentin, 2008). 이처럼 선행연구의 결과가 엇갈리게 나타나는 이유는 자기애적 성격 특성 중 분노와 공격성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폭력적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며, 자기애의 하위유형에 따라 다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 경로에 매개하는 다른 심리적 속성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가 데이트폭력 가해로 이어지는 경로에 작용하는 요인으로 거부민감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거부민감성이란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신이 거부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역동적인 인지-정서적 과정이다 (Downey et al., 2004; Feldman & Downey, 1994). 인지-정서적 과정 이론에 따르면 거부민감성은 초기 주 양육자에 의한 거부 경험으로부터 발달하는데, 초기 양육 경험을 통해 거부민감성이 발달한 사람들은 성장하고 난 후에도 타인에게 거부당할 것이라는 기대를 발달시키게 된다. 이후 개인은 촉발 자극이 있을 때 거부 단서에 선택적 주의를 기울이고 극심한 경계가 촉진되며, 불확실하고 모호한 자극에 대해서도 거부 신호로 지각하게 된다. 또한 자신이 거부당할 것이라고 지각하면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질투나 분노, 적대감 등과 같은 인지-정서적 과잉반응을 보이며, 타인에 대한 지

지의 철수, 질투나 공격과 같은 부적응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Feldman & Downey, 1994; Levy et al., 2001).

거부민감성은 주로 친밀한 대상에게 표출된다는 면에서 데이트폭력의 주요 변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신지연, 최수미, 2017). 한 연구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연인관계에서 이별 통보, 거절과 같이 자신의 요구가 거부될 때 과민반응을 보이면서 폭력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고(Downey et al., 2000), Leary와 동료들(2006) 역시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연인관계에서 더 많은 적대감과 공격성을 직·간접적으로 표출하였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취약성과 유사한 개념인 내현적 자기애와 거부민감성 간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고해왔으며(김정남, 2015; 박우람, 홍상황, 2014), 이경숙(2019)의 연구에 따르면 외현적 자기애 역시 거부민감성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먼저 자기애적 취약성이 높은 사람은 불안 수준이 높고, 타인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거부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예민한 특성을 보인다(이준득, 2005). 특히 자신이 거절당하면 안 된다는 자기애적 신념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거절 여부를 굉장히 예민하게 살피고, 사소한 단서조차도 자신을 거부하는 것으로 연결시키는데(공지혜, 하정희, 2021), 이 과정에서 자기상이 위협받으면 폭력과 같은 파괴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박우람, 홍상황, 2015).

더불어 자기애적 웅대성이 높은 사람은 웅대한 자기상을 유지하기 원하지만 방어적이고 불안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기 때문에(Morf & Rhodewalt, 2001),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나 거부에 직면하면 웅대한 자기상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여 분노

할 수 있다(Blinkhorn et al., 2016). 웅대한 자기손상에 취약한 이들에게 대인관계에서의 거부 상황은 분노와 같은 정서적 체계가 활성화되어 공격성을 증폭시켜 폭력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김시원, 박경, 2012; 백승혜, 현명호, 2008; Twenge & Campbell, 2003).

요약하면, 병리적 자기애자는 자존감의 손상에 매우 예민하고 외부의 평가와 인정을 통해서 자기 가치를 타당화하기 때문에(Fourie, 2010) 타인의 거절에 매우 예민해질 수 있으며, 사소하거나 중립적인 자극도 거부 및 적대적 의도로 지각할 수 있다. 또한 자기상에 위협을 지각하면 분노감이 크게 촉발되면서 데이트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병리적 자기애 성향으로 인해 촉발되는 거부민감성이 데이트폭력 가해를 매개한다고 가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모든 변인들에서 성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남성은 여성보다 자기애적 경향이 더 외현적이고 웅대성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인 반면(O'Leary & Wright, 1986), 여성의 자기애는 수치심에 특히 민감하여 간접적이고 미묘한 성격으로 분류되는 특징에서 취약한 자기애의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Wardetzki, 2006; Wright et al., 2010). 반면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여성의 취약성 자기애가 높게 나타났지만 웅대성 자기애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Green, MacLean, & Charles, 2020). 더불어 웅대성 및 취약성 자기애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최상은, 2021)가 있는 등 결과가 다소 혼재되어 있다.

또한, 데이트폭력에 있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데이트폭력 가해를 더 빈번하게 한다는

결과(서경현 등, 2001; Foo & Margoiln, 1995)가 있는 반면, 여성이 더 높다는 결과도 있다(남귀숙, 이수진, 2020; 손연우, 권호인, 2018; Archer, 2000). 더불어 데이트폭력의 가해 경험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한 연구(장정윤, 강지현, 2017; 하예지, 서미경, 2014)가 있다. 데이트폭력 가해의 성차가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는 남녀의 폭력이 다른 양상을 띠기 때문일 수 있다(배재은, 2016). 남성의 경우 여성이 자신을 모욕하거나 망신을 줄 때, 혹은 통제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자기방어가 필요할 때나 질투를 표현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다고 보고되었다(Roscoe & Benaske, 1985; 홍주연, 조성원, Brannon, 2012). 따라서 데이트폭력 가해의 성차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거부민감성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거부민감성이 높거나(변은실, 이주영, 2016; 이다정, 2020),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연구(황정현, 2022)가 있는 반면 성별에 따라 거부민감성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도 있다(김다운, 2020).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데이트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성차가 있다면 이는 데이트폭력 가해 경험을 하는 성인 남녀를 위한 구체적인 개입 방법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20대가 가장 높다(경찰청, 2021). 그 이유 중 하나는 20대에 타인과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능력을 개발하여 이성 교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다(최운경, 2012; Erikson, 1963). 따라서 20대의 데이트폭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폭력'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심리적 측면보다는 신체적·성적 측면이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연인관계에서의 심리적 폭력은 성적 폭력, 신체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어떤 경우에는 신체적 폭력 보다 더욱 부정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정운경, 2008; Street & Arias, 2001). 더불어 데이트 관계 안에서의 통제 행동은 심리적, 신체적 폭력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으며(이경숙, 2019; Neufeld et al., 1999), 이성애에 대한 통제 욕구가 강할수록 폭력을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hrensaft & Vivian, 1999). 이는 데이트폭력을 신체나 성적 폭력에 국한하여 보는 대신 보다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대 성인 남녀의 데이트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병리적 자기애와 거부민감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들 간의 영향 관계를 성차와 데이트폭력 유형별로 나누어 심도 있게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아직까지 연구가 미흡한 병리적 자기애가 거부민감성을 매개하여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데이트폭력 가해의 원인에 대한 성격적 측면의 이해를 돕고, 데이트 관계에서 갈등상황의 적절한 개입방안을 찾아 데이트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이를 종합하면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애적 취약성 및 응대성, 거부민감성, 심리적·신체적·성적, 통제행동의 데이트폭력 가해에 있어서 성차가 있는가? 둘째, 자기애적 취약성 및 자기애적 응대성과 데이트폭력 각 유형(심리적·신체적·성적 폭력, 통제행동)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가? 셋째, 자기애적 취약성 및 응대성이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데이트폭력 각

유형(심리적·신체적·성적 폭력,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성별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연애 경험이 1회 이상 있는 2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모집은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 등의 SNS 및 대학교별 커뮤니티에서 '20대 성인남녀의 병리적 자기애가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제목으로 온라인 모집 광고를 게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을 완료한 연구대상은 총 400명이었으며, 이 중 불성실 응답과 대상자 연령대가 아닌 19명을 제외한 381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 대상자 381명 중 여성은 197명(51.7%), 남성은 184명(48.3%)이었다. 평균연령과 표준편차는 여성은 만 24.41세(2.40), 남성은 만 24.86세(2.38)였다. 직업은 남녀 모두 대학생(여성 48.7%; 남성 50%)이 가장 많았고, 거주지역은 서울이 가장 많았다(여성 24.9%; 남성 26.1%).

측정도구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 가해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Staus와 동료들(1996)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척도를 김정란과 김경신(1999)이 한국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타당화 한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CTS-2)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심리적 폭력 11문항(예: '고함을 지르거나 큰소리를 낸 적이 있다' 등), 신체적 폭력 7문항(예: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파트너에게 던진 적이 있다' 등), 성적 폭력 4문항(예: '파트너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성행동을 조르거나 강력하게 요구한 적 있다' 등)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에 통제행동을 포함해야 한다는 선행연구들의 제안에 기반하여 이성 관계 내에서 미묘하게 일어나는 통제행동을 포함하였다. 통제행동 측정은 Stets(1992)의 Appraisal of Partner Control Scale을 김예정과 김득성(1999) 및 이경숙(2019)이 수정한 4문항(예: '파트너가 하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만두게 한 적이 있다' 등)를 사용하였다. 전체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가해 경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전체문항이 .93, 심리적 폭력 .91, 통제행동은 .78, 신체적 폭력 .97, 성적 폭력 .91로 나타났다.

병리적 자기애

자기애적 취약성과 자기애적 웅대성을 측정하기 위해 Pincus와 동료들(2009)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척도를 양진원, 권석만(2016)이 번안 및 타당화 한 한국판 병리적 자기애 척도(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NI)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애적 웅대성 15문항(예: '나는 사람들이 나를 감탄하고 존경하는 것에 대한 공상을 자주한다' 등), 자기애적 취약성 20문항(예: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0점에서 5점까지 주어지는 6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유형의 병리적 자기애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전체 문항이 .95, 자기애적 웅대성이 .92, 자기애적 취약성이 .96으로 나타났다.

거부민감성

거부민감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한 거부민감성 질문지(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RSQ)를 토대로 박명진과 양난미(2017)가 개발 및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인 예기분노 5문항(예: '거부당했다고 생각되면 화가난다' 등), 예기불안 3문항(예: '배신당하거나 버려질까봐 불안하다' 등), 과잉반응 4문항(예: '거부당할 것이라 생각되면 거리감이 생긴다' 등), 거부로 지각 3문항(예: '내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다면 거부당했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까지 주어지는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거부민감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전체문항이 .94, 예기분노 .88, 예기불안 .83, 과잉반응 .87, 거부지각 .84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6.0과 SPSS PROCESS Macro 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빈도분석을 통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둘째, 모든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통해 병리적 자기애와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넷째, 병리적 자기애와 거부민감성이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model 14를 사용하여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각 성별의 거부민감성 평균을 기준으로 ± 1 표준편차 저집단과 고집단을 나누어 기울기를 확인하였으며, 조절된 매개효과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의 관계

본 연구에서 주요 변인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심리적 폭력은 자기애적 취약성, 자기애적 웅대성, 거부민감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신체적 폭력은 자기애적 취약성, 자기애적 웅대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거부민감성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성적 폭력은 자기애적 취약성, 거부민감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자기애적 웅대성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통제행동은 자기애적 취약성, 자기애적 웅대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N=381)

	여성(N=197)							
	1	2	3	4	4-1	4-2	4-3	4-4
1. 자기에적 취약성	1							
2. 자기에적 응대성	.73***	1						
3. 거부민감성	.56***	.29***	1					
4. 데이트폭력 가해	.50***	.27***	.64***	1				
4-1. 심리적 폭력	.41***	.20**	.67***	.89***	1			
4-2. 신체적 폭력	.40***	.32***	.14	.71***	.41***	1		
4-3. 성적 폭력	.24**	.04	.47***	.67***	.45***	.42***	1	
4-4. 통제행동	.46***	.20**	.70***	.66***	.57***	.27**	.43***	1

	남성(N=184)							
	1	2	3	4	4-1	4-2	4-3	4-4
1. 자기에적 취약성	1							
2. 자기에적 응대성	.39***	1						
3. 거부민감성	.42***	.25**	1					
4. 데이트폭력 가해	.30***	.66***	.51***	1				
4-1. 심리적 폭력	.41***	.33***	.69***	.77***	1			
4-2. 신체적 폭력	.07	.68***	.12	.81***	.28***	1		
4-3. 성적 폭력	.31***	.37***	.50***	.78***	.69***	.47***	1	
4-4. 통제행동	.16*	.70***	.26***	.73***	.31***	.73***	.36***	1

* $p < .05$, ** $p < .01$, *** $p < .001$

성, 거부민감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남성은 심리적·신체적·성적 폭력, 통제행동 총점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심리적 폭력은 자기에적 취약성, 자기에적 응대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신체적 폭력은 자기에적 응대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자기에적 취약성, 거부민감성과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성적 폭력은 자기에적 취약성,

자기에적 응대성, 거부민감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통제행동은 자기에적 취약성, 자기에적 응대성, 거부민감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집단 평균 차이 검증

주요 변인에서의 성별 간 차이 비교를 위해 평균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성별 차이 (N=381)

변인	여성	남성	t	d	왜도	첨도
	(N=197)	(N=184)				
	M(SD)	M(SD)				
병리적 자기애	81.13(28.09)	73.21(28.67)	2.72**	.28	-.02	-.13
자기애적 웅대성	36.35(12.85)	37.03(16.07)	-0.46	.05	.15	-.08
자기애적 취약성	44.78(17.28)	36.18(18.27)	4.72***	.48	.11	-.47
거부민감성	47.10(11.83)	40.56(13.78)	4.98***	.51	.00	-.02
데이트폭력	64.81(17.57)	58.56(21.33)	3.13**	.32	.77	.78
심리적 폭력	31.35(9.68)	25.73(9.61)	5.68***	.58	.63	-.05
통제행동	16.53(3.25)	15.31(4.10)	3.22**	.35	.17	-.31
신체적 폭력	11.10(6.52)	14.15(9.71)	-3.62***	.37	1.20	.25
성적 폭력	7.43(3.25)	6.36(3.99)	6.64**	.30	.84	.11

*p<.05, **p<.01, ***p<.001

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병리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 자기애적 취약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자기애적 웅대성은 성별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거부민감성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하고 높게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가해 경험의 경우 남성은 여성에 비해 신체적 폭력 가해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심리적 폭력 가해, 통제행동 가해 및 성적 폭력 가해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의 변인들에서 왜도와 첨도는 절댓값이 2와 7을 넘지 않아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urran, West, Finch, & Appelbaum, 1996).

자기애적 취약성과 데이트폭력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병리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인 자기애적 취약

성이 거부민감성을 통하여 심리적·신체적·성적 폭력 및 통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첫째, 독립변인을 자기애적 취약성으로, 종속변인을 심리적 폭력으로 설정한 매개 1의 회귀분석 결과 직접경로가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자기애적 취약성은 거부민감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거부민감성과 심리적 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거부민감성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을 때,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거부민감성이 자기애적 취약성과 심리적 폭력 사이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독립변인을 자기애적 취약성으로, 종

표 3. 자기애적 취약성과 데이트폭력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자기애적 취약성 → 거부민감성 → 심리적 폭력				
Variables	<i>B</i>	<i>SE</i>	<i>t</i>	<i>p</i>
자기애적 취약성 → 거부민감성	.37	.03	11.78***	.000
거부민감성 → 심리적 폭력	.49	.03	15.13***	.000
자기애적 취약성 → 심리적 폭력	.06	.02	2.70**	.007
Bootstrap	<i>Effect</i>	<i>SE</i>	<i>LL95%CI</i>	<i>UL95%CI</i>
Bootstrap results for indirect effect				
거부민감성	.1828	.0192	.1431	.2192
자기애적 취약성 → 거부민감성 → 신체적 폭력				
Variables	<i>B</i>	<i>SE</i>	<i>t</i>	<i>p</i>
자기애적 취약성 → 거부민감성	.37	.03	11.78***	.000
거부민감성 → 신체적 폭력	.14	.01	-.14	.893
자기애적 취약성 → 신체적 폭력	.07	.03	2.58*	.010
Bootstrap	<i>Effect</i>	<i>SE</i>	<i>LL95%CI</i>	<i>UL95%CI</i>
Bootstrap results for indirect effect				
거부민감성	-.0019	.0203	-.0456	.0333
자기애적 취약성 → 거부민감성 → 성적 폭력				
Variables	<i>B</i>	<i>SE</i>	<i>t</i>	<i>p</i>
자기애적 취약성 → 거부민감성	.37	.03	11.78***	.000
거부민감성 → 성적 폭력	.14	.01	9.50***	.000
자기애적 취약성 → 성적 폭력	.02	.01	1.50	.135
Bootstrap	<i>Effect</i>	<i>SE</i>	<i>LL95%CI</i>	<i>UL95%CI</i>
Bootstrap results for indirect effect				
거부민감성	.0526	.0072	.0378	.0659
자기애적 취약성 → 거부민감성 → 통제행동				
Variables	<i>B</i>	<i>SE</i>	<i>t</i>	<i>p</i>
자기애적 취약성 → 거부민감성	.37	.03	11.78***	.000
거부민감성 → 통제행동	.12	.02	7.72***	.000
자기애적 취약성 → 통제행동	.02	.01	1.99*	.047
Bootstrap	<i>Effect</i>	<i>SE</i>	<i>LL95%CI</i>	<i>UL95%CI</i>
Bootstrap results for indirect effect				
거부민감성	.0433	.0078	.0279	.0588

속변인을 신체적 폭력으로 설정한 매개 2의 회귀분석 결과 직접경로가 유의하였으나, 종속변인인 신체적 폭력과 매개변인인 거부민감성의 관련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자기애적 취약성은 거부민감성과 관련 없이 직접적으로 신체적 폭력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독립변인을 자기애적 취약성으로, 종속변인을 성적 폭력으로 설정한 매개 3의 회귀분석 결과, 매개변인인 거부민감성이 투입되면서 성적 폭력에 대한 자기애적 취약성의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애적 취약성은 거부민감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거부민감성은 성적 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거부민감성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거부민감성이 자기애적 취약성과 성적 폭력의 사이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독립변인을 자기애적 취약성으로, 종속변인을 통제행동으로 설정한 매개 4의 회귀분석 결과 직접경로가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자기애적 취약성은 거부민감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거부민감성은 통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거부민감성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거부민감성이 자기애적 취약성과 통제행동 사이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기애적 웅대성과 데이트폭력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병리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인 자기애적 웅대

성이 거부민감성을 통하여 심리적·신체적·성적 폭력 및 통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첫째, 독립변인을 자기애적 웅대성으로, 종속변인을 심리적 폭력으로 설정한 매개 1의 회귀분석 결과 직접경로가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자기애적 웅대성은 거부민감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부민감성은 심리적 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거부민감성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을 때,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거부민감성이 자기애적 웅대성과 심리적 폭력 사이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독립변인을 자기애적 웅대성으로, 종속변인을 신체적 폭력으로 설정한 매개2의 회귀분석 결과 직접경로가 유의하였으나, 종속변인인 신체적 폭력과 매개변인인 거부민감성의 관련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자기애적 웅대성은 거부민감성과 관련 없이 직접적으로 신체적 폭력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독립변인을 자기애적 웅대성으로, 종속변인을 성적 폭력으로 설정한 매개 3의 회귀분석 결과, 매개변인인 거부민감성이 투입되면서 성적 폭력에 대한 자기애적 웅대성의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애적 웅대성은 거부민감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거부민감성은 성적 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거부민감성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95% 신뢰구간에 0을

표 4. 자기애적 웅대성과 데이트폭력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자기애적 웅대성 → 거부민감성 → 심리적 폭력				
Variables	<i>B</i>	<i>SE</i>	<i>t</i>	<i>p</i>
자기애적 웅대성 → 거부민감성	.23	.05	5.06***	.000
거부민감성 → 심리적 폭력	.52	.03	18.11***	.000
자기애적 웅대성 → 심리적 폭력	.05	.03	1.99*	.047
Bootstrap	<i>Effect</i>	<i>SE</i>	<i>LL95%CI</i>	<i>UL95%CI</i>
Bootstrap results for indirect effect				
거부민감성	.1191	.0327	.0545	.1834
자기애적 웅대성 → 거부민감성 → 신체적 폭력				
Variables	<i>B</i>	<i>SE</i>	<i>t</i>	<i>p</i>
자기애적 웅대성 → 거부민감성	.23	.05	5.06***	.000
거부민감성 → 신체적 폭력	-.04	.03	-1.56	.120
자기애적 웅대성 → 신체적 폭력	.32	.03	12.57***	.000
Bootstrap	<i>Effect</i>	<i>SE</i>	<i>LL95%CI</i>	<i>UL95%CI</i>
Bootstrap results for indirect effect				
거부민감성	-.0101	.0077	-.0263	.0045
자기애적 웅대성 → 거부민감성 → 성적 폭력				
Variables	<i>B</i>	<i>SE</i>	<i>t</i>	<i>p</i>
자기애적 웅대성 → 거부민감성	.23	.05	5.06***	.000
거부민감성 → 성적 폭력	.15	.01	11.18***	.000
자기애적 웅대성 → 성적 폭력	.02	.01	1.89	.059
Bootstrap	<i>Effect</i>	<i>SE</i>	<i>LL95%CI</i>	<i>UL95%CI</i>
Bootstrap results for indirect effect				
거부민감성	.0335	.0097	.0146	.0526
자기애적 웅대성 → 거부민감성 → 통제행동				
Variables	<i>B</i>	<i>SE</i>	<i>t</i>	<i>p</i>
자기애적 웅대성 → 거부민감성	.23	.05	5.06***	.000
거부민감성 → 통제행동	.10	.01	8.59***	.000
자기애적 웅대성 → 통제행동	.10	.01	9.19***	.000
Bootstrap	<i>Effect</i>	<i>SE</i>	<i>LL95%CI</i>	<i>UL95%CI</i>
Bootstrap results for indirect effect				
거부민감성	.0237	.0078	.0096	.0401

포함하지 않으므로 거부민감성이 자기애적 응대성과 성적 폭력의 사이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독립변인을 자기애적 응대성으로, 종속변인을 통제행동으로 설정한 매개 4의 회귀 분석 결과 직접경로가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자기애적 응대성은 거부민감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거부민감성은 통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거부민감성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거부민감성이 자기애적 응대성과 통제행동 사이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기애적 취약성과 심리적·성적 폭력, 통제 행동 가해 경험의 관계에서 성별에 의해 조절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앞서 병리적 자기애와 심리적·성적 폭력 가해 및 통제행동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반면, 병리적 자기애와 신체적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는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병리적 자기애와 심리적·성적 폭력, 통제행동 가해의 관계에서 성별에 의해 조절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14에 따라 조절된 매개분석을 실시하였고,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기애적 취약성과 거부민감성이 심리적·성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기애적 취약성이 거부민감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거부민감성은 심리적·성적 폭력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부민감성과 성별의 상호작용항은 심리적·성적 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자기애적 취약성과 심리적·성적 폭력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매개하고, 이 관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자기애적 취약성과 거부민감성이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기애적 취약성이 거부민감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거부민감성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도 통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조절된 매개지수의 부트스트래핑 검증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했다. 즉, 자기애적 취약성이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통제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성별은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를 표 5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거부민감성의 조건부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그림 2와 같다. 검증 결과 여성과 남성 모두 부트스트래핑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의한 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간접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자기애적 응대성과 심리적·성적 폭력, 통제 행동 가해 경험의 관계에서 성별에 의해 조절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먼저, 자기애적 응대성과 거부민감성이 심리적·성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기애적 응대성이 거부민감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표 5. 자기애적 취약성과 거부민감성, 통제행동의 관계: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i>Mediator variable model</i>					
Outcome variable: 거부민감성					
	<i>B(SE)</i>	<i>t</i>	<i>p</i>	<i>LL</i> 95% <i>CI</i>	<i>UL</i> 95% <i>CI</i>
자기애적 취약성	.37(.03)	11.78***	.000	.3120	.4370
<i>Dependent variable model</i>					
Outcome variable: 통제행동					
	<i>B(SE)</i>	<i>t</i>	<i>p</i>	<i>LL</i> 95% <i>CI</i>	<i>UL</i> 95% <i>CI</i>
자기애적 취약성	.02(.01)	1.45	.148	-.0056	.0367
거부민감성	.07(.02)	3.69***	.000	.0316	.1037
성별	.29(.34)	.84	.402	-.3881	.9661
거부민감성 × 성별	.11(.03)	4.27***	.000	.0603	.1634
<i>Index of moderated mediation</i>					
조절변인	Index	Boot SE	BootLLCL	BootULCL	
성별	.0419	.0126	.0198	.0691	



그림 1. 자기애적 취약성과 통제행동의 관계에서 성별에 의한 거부민감성의 조절된 매개모형

거부민감성은 심리적·성적 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부민감

성과 성별의 상호작용항은 심리적·성적 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자기애적 응대성과 심리적·성적 폭력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매개하고, 이 관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자기애적 응대성과 거부민감성이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기애적 응대성이 거부민감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거부민

표 6. 성별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Mediator	Moderator: 성별	Indirect effect	BootSE	BootLLCI	BootULCI
거부민감성	여성	.0672	.0083	.0514	.0840
	남성	.0253	.0112	.0008	.04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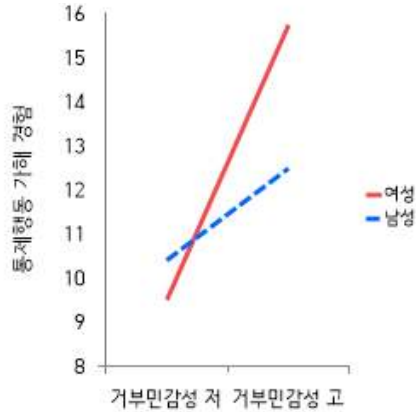


그림 2. 자기애적 취약성과 거부민감성, 통제행동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감성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도 통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조절된 매개지수의 부트스트래핑 검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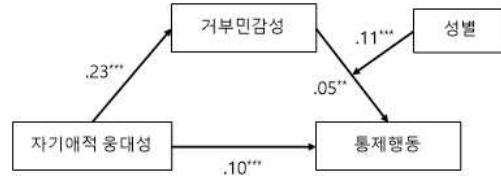


그림 3. 자기애적 웅대성과 통제행동의 관계에서 성별에 의한 거부민감성의 조절된 매개모형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했다. 즉, 자기애적 웅대성이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통제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성별은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를 표 7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거부민감성의 조건부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그림 4와 같다.

표 7. 자기애적 웅대성과 거부민감성, 통제행동의 관계: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i>Mediator variable model</i>					
Outcome variable: 거부민감성					
	<i>B(SE)</i>	<i>t</i>	<i>P</i>	<i>LL</i> 95% <i>CI</i>	<i>UL</i> 95% <i>CI</i>
자기애적 웅대성	.23(.05)	5.06***	.000	.1404	.3187

<i>Dependent variable model</i>					
Outcome variable: 통제행동					
	<i>B(SE)</i>	<i>t</i>	<i>P</i>	<i>LL</i> 95% <i>CI</i>	<i>UL</i> 95% <i>CI</i>
자기애적 웅대성	.10(.01)	9.57***	.000	.0811	.1231
거부민감성	.05(.02)	2.98**	.003	.0160	.0784
성별	.62(.31)	2.02*	.044	.0173	1.2301
거부민감성 × 성별	.11(.02)	4.80***	.000	.0664	.1586

<i>Index of moderated mediation</i>				
조절변인	Index	Boot SE	BootLLCL	BootULCL
성별	.0258	.0066	.0130	.0384

표 8. 성별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Mediator	Moderator: 성별	Indirect effect	BootSE	BootLLCI	BootULCI
거부민감성	여성	.0367	.0097	.0270	.0553
	남성	.0101	.0065	-.0018	.0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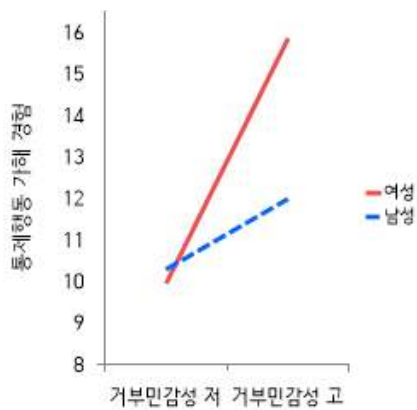


그림 4. 자기애적 웅대성과 거부민감성, 통제행동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여성은 부트스트래핑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의한 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효과 크기가 작았으며, 부트스트래핑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어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여성의 경우 자기애적 웅대성과 통제행동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20대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병리적 자기애와 거부민감성이 데이트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병리적 자기애가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거부민감성이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 변인에 있어서 성차가 있는지, 매개 경로를 성별이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는 병리적 자기애, 거부민감성, 데이트폭력 가해에서 유의한 성차를 보였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데이트폭력 하위유형 중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 통제행동을 더 높게 보고하였다. 이는 여성이 심리적 폭력(손연우, 권호인, 2018; 장정운, 강지현, 2017)과 통제행동(홍태경, 2018; Zeigler-Hill & Wallace, 2012)을 남성에 비해 더 많이 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지만, 남성이 성적 폭력 가해를 더 많이 행사한다는 선행 연구(양승애, 서경현, 2014; 이숙정, 권호인, 2021)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반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신체적 폭력을 더 높게 보고하였다. 이는 여성이 신체적 폭력 가해를 더 많이 행사한다는 선행연구(손연우, 권호인, 2018; O'Keefe, 1997)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폭력을 제외한 세 가지 폭력 면에서 모두 여성의 가해 보고가 더 많았다. 이는 남녀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으며, 남성의 폭력에 대한 방어적 태도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

병리적 자기애의 경우 자기애적 취약성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자기애적 웅대성에서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Green et al., 2020). 즉, 여성의 자기애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적인 수치심, 열등감에 더 민감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주장(O'Leary & Wright, 1986)과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보다 신중하고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Morf & Rhodewalt, 2001; Campbell & Miller, 2011)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거부민감성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Ayduk et al., 2000).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 대인관계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모호한 상황에서도 거부를 더 쉽게 인식하고 거부에 의한 부정적 정서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Cyranowski et al., 2000).

둘째, 자기애적 취약성과 자기애적 웅대성, 데이트폭력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기애적 취약성과 자기애적 웅대성은 심리적 폭력, 통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거부민감성을 부분 매개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리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은 연인관계에서 거부에 대한 촉발 자극이 있을 때 거부민감성이 강화되면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폭력을 가하거나 상대방을 통제하는 행위를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거부민감성이 심리적 폭력과 통제행위를 포함한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신지연, 최수미, 2017), 거부에 대한 예측이 심리적 데이트폭력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김선혜, 2019), 그리고 거부민감성이 높은 경우 상대방이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는 예측과 불안감으로 인해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특성

을 지닌다는 주장과도 일치한다(Downey & Feldman, 1996).

반면 자기애적 취약성과 자기애적 웅대성, 신체적 폭력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높은 병리적 자기애 성향이 신체적 폭력 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병리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거부민감성은 증가하지만, 증가된 거부민감성이 신체적 폭력 가해로 직접 이어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자기애 성향자들은 거부민감성과 관계없이 이성 관계 갈등상황에서 느끼는 분노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고 공격적이고 극단적 방법을 통해 표출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직접적인 공격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애정 철회와 같은 전략을 사용하여 거부한 상대방에게 복수하는 경향이 있다(Ayduk, May, Downey, & Higgings, 2003). 이를 감안할 때, 거부민감성은 심리적 폭력과 같이 보다 수동공격적 방식의 폭력에서 중요한 요인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신체적 데이트폭력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충동성(홍세은, 정지수, 2019), 분노(Dye & Eckhardt, 2000), 경계성 성격장애(양승애, 서경현, 2014)와 같은 다른 요인이 신체적 폭력을 촉발하는 요인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추후 연구에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자기애적 취약성과 자기애적 웅대성, 성적 폭력의 관계에서는 거부민감성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완전매개 효과는 자기애 성향 자체가 성적 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자기애 성향으로 인해 상대방의 거부를 극도로 두려워하게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적으로 폭력적일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폭력 행위의 상당 부분은 사랑받고 수용된다고 느끼는 정도에 영향을 받으며(Kahya, 2021), 충분히 수용되지 못하고 거부당한다고 느끼면 거부감을 피하고자 성적으로 강압적인 행동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Stead et al., 2022). 또 다른 연구에서도 파트너가 자신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기방어로서 성적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양승애, 서경현, 2015; Downey et al., 2004). 즉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상대에 대한 성적 행동이 그 사람이 자신을 떠나지 않게 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성적 폭력의 전조로서 관계 불안정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Stead et al., 2022). 이러한 결과는 데이트폭력의 예방 및 치료에 있어 병리적 자기애 성향 뿐 아니라 거부민감성에 대한 접근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셋째, 자기애가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제행동에 있어서만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했다. 즉 남녀를 모두 포함했을 때 거부민감성의 매개경로가 유의했던 심리적 폭력과 성적 폭력에 있어서는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남녀 모두 자기애적 취약성이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했지만, 그 영향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여성의 경우 자기애적 웅대성이 강하면 거부민감성 수준이 증가하고 통제행동 경향이 증가하지만, 남성의 경우 자기애적 웅대성이 강하여 거부민감성 수준이 증가하더라도 이는 통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거부민감성이 높은 경우 상대방이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인해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특성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Downey & Feldman, 1996). 따라서 특히 여성의 경우 거부민감성을 줄이는 개입이 통제행동 가해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모두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특히 데이트폭력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다소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나 방어적 태도를 가지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관찰이나 면접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을 20대 성인으로 제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일반화의 한계가 존재한다. 데이트폭력이 2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다른 연령들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여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데이트폭력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유형과 변인 간 관련성을 밝혔다. 통제행동과 심리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과 달리 가시적인 피해가 드러나지 않아(홍영오, 2017; 홍태경, 2018)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잘 인식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통제행동과 심리적 폭력은 다른 데이트폭력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Stets, 1992), 통제행동과 심리적 폭력이 데이트폭력 전체유형 중 가장 많

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홍영오, 2017; 홍태경, 2018) 연구의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자기애와 데이트폭력에 대한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 제안된 자기애적 취약성 및 자기애적 웅대성과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를 검증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애적 취약성 및 자기애적 웅대성이 거부민감성을 매개하여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성별에 따른 집단간의 비교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남성과 여성에서 데이트폭력 가해의 원인과 경로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데이트폭력 가해에 대한 접근에서 성별에 따라 다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병리적 자기애의 성격 특질이 있더라도 거부민감성에 대한 개입을 통해 데이트폭력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병리적 자기애는 안정화된 개인의 성격특성이므로 치료적 접근 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지만, 거부민감성에 대한 상담 및 치료 개입은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내담자는 거부에 대한 예민함과 두려움, 그리고 연인에 대한 기대심리로 매사에 불안한 감정을 느낀다. 이러한 불안감을 다루기 위해서 그들의 내적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을 공감해주어 두려움과 연관된 경험과 욕구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Greenberg & Paivio, 2003). 더불어 거부민감성을 낮추기 위하여 모호한 상황을 거부로 인식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거부가 의도된 거부가 아니라고 인식할 수 있는 인지 재구조화 전략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다(변은실, 이주영, 2016).

참고문헌

- 경찰청 (2021). 치안전망 2022. 서울: 치안정책연구소.
https://psi.police.ac.kr/police/board/view.do?bbsId=BBSMSTR_00000000159&menuNo=116001000000&ntId=158752
- 공지혜, 하정희 (2021).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경험회피의 관계: 내현적 자기애와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2(2), 207-229.
- 김나은, 박지선 (2021). 성별에 따른 자기애가 데이트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 양가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법, 12(3), 279-300.
- 김다은 (2020). 대학생의 거부민감성, 자기침묵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루터대학교 루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혜 (2019). 성인의 거부민감성과 데이트폭력의 관계: 분노억제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시원, 박경 (2012).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 역기능적 분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10), 121-141.
- 김예정, 김득성 (1999).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 집단의 특성과 신체적 폭력 발생의 맥락.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187-211.
- 김정남 (2015).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자살사고와의 관계: 자기비난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학연구, 22(3), 77-96.
- 김정란, 김경신 (1999). 대학생이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7(8),

- 73-90.
- 남귀숙, 이수진 (2020).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와의 관계: 분노 표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7(1), 87-107.
- 박명진, 양난미 (2017). 대학생 거부민감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1), 103-127.
- 박우람, 홍상환 (2014).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내현적 자기애와의 종단적 인과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3), 455-477.
- 배재은 (2016). 미혼남녀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승혜, 현명호 (2008).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적대감, 분노 경험수준 및 분노 표현양식.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4), 1001-1017.
- 변은실, 이주영 (2016).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4), 1125-1149.
- 서경현 (2008). 공격적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의 분노 및 분노표현, 정신병적 경향성, 중독성과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2), 21-39.
- 서경현, 김봉진, 정구철, 김신섭 (2001). 대학생들의 연애 폭력과 예측변인. 대학여성건강학회지, 2(1), 75-97.
- 서경현, 김유정, 정구철, 양승애, 김보연 (2010). 데이트폭력에 대한 거부장/비대칭 패러다임과 성-포괄적 모델의 타당성 재고.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781-799.
- 손연우, 권호인 (2018).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파트너 통제가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3), 549-566.
- 신지연, 최수미 (2017). 거부민감성, 비대칭 패러다임이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4), 533-549.
- 안지은 (2022). 집착성향과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데이트 폭력 인식의 조절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승애, 서경현 (2014). 집착 성향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 경계선 성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10), 315-336.
- 양진원 (2012). 병리적 자기애 성향자의 웅대성과 취약성에 따른 정서적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진원, 권석만 (2016). 병리적 자기애 성향자의 웅대성과 취약성에 따른 정서적 특성.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5(1), 215-242.
- 원선호, 배성만(2020).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분노의 매개역할과 인지적 공감의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5(3), 549-567.
- 이경숙 (2019). 외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다정 (2020). 성별에 따른 아동의 거부민감성과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민 (2020). 남녀 대학생의 취약성 자기애와 특성분노의 관계.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 이숙정, 권호인 (2021). 남녀의 가해동기와 폭력 정당화가데이트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APIM)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7(4), 391-410.
- 이아람 (2018). 미혼남녀의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 부정적 자동사고와 집착행동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돈 (2018).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연구. 경찰법연구, 16(1), 151-178.
- 이재란, 정근선 (2020). 국내 데이트 폭력 가해 연구 동향 분석. 교정담론, 14(1), 211-241.
- 이준득 (2005).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분노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정윤, 강지현 (2017). 대학생의 대상관계수준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집착행동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1), 307-327.
- 정윤경 (2008). 남편의 정서적 폭력과 아내의 우울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은영, 곽은희 (2012). 실패 피드백 이후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분노와 분노 표현 양식. 재활심리연구, 19(3), 583-599.
- 최상은 (2021). 성인 남녀의 병리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이 데이트 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경 (2012). 여대생의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 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예지, 서미경 (2014). 데이트 폭력 인식과 폭력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0(4), 79-103.
- 한수정, 권석만 (2010). 자기애자의 자기관련 정보에 대한 지각적 민감성.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4), 1135-1143.
- 홍세은, 정지수 (2019). 아동기 학대 피해 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폭력허용도와 충동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형사정책연구, 30(4), 69-104.
- 홍영오 (2017). 성인의 데이트폭력 가해요인. 형사정책연구, 28(2), 321-353.
- 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491.
- 홍주연, 조성원, Brannon, L. (2012). 젠더심리학: 여성과 남성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 한티미디어.
- 홍태경 (2018). 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 가해실태와 가해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5(2), 491-520.
- 황정현 (2022). 대학생의 성별, 성인애착, 학년에 따른 거부민감성, 자기자비, 관계중독의 차이.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guilar, R. J., & Nightingale, N. N. (1994). The impact of specific battering experiences on the self-esteem of abused women. *Journal of Family Violence*, 9(1), 35-45.
- Akhtar, S. (2003). *New clinical realms: Pushing the envelope of theory and technique*. Jason Aronson.
- Archer, J. (2000).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partner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6(5), 651-680.
- Ayduk, O., Denton, R., Mischel, W., Downey, G., Peake, P. K., & Rodriguez, M. (2000).

- Regulating the interpersonal self: strategic self-regulation for coping with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5), 776-792.
- Ayduk, O., May, D., Downey, G., & Higgins, E. T. (2003). Tactical differences in coping with rejection sensitivity: The role of prevention prid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4), 435-448.
- Blinkhorn, V., Lyons, M., & Almond, L. (2016). Drop the bad attitude! Narcissism predicts acceptance of violent behaviou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8, 157-161.
- Campbell, W. K., & Miller, J. D. (2011). *The handbook of narcissism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John Wiley & Sons.
- Carton, H., & Egan, V. (2017). The dark triad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5(15), 84-88.
- Cyranowski, J. M., Frank, E., Young, E., & Shear, K. (2000). Adolescent onset of gender differences in lifetime rates of major depression. *A theoretical model.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7(1), 21-27.
- Dickinson, K. A., & Pincus, A. L. (2003). Interpersonal analysis of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7(3), 188-207.
- Downey, G., & Feldman, S. I.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1343.
- Downey, G., Feldman, S., & Ayduk, O. (2000). Rejection sensitivity and male violence in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7(1), 45-61.
- Downey, G., Mougios, V., Ayduk, O., London, B. E., & Shoda, Y. (2004).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defensive motivational system: Insights from the startle response to rejection cues. *Psychological Science*, 15(10), 668-673.
- Dye, M. L., & Eckhardt, C. I. (2000). Anger, irrational beliefs, and dysfunctional attitudes in violent dating relationships. *Violence Victims*, 15(3), 337-350.
- Ehrensaft, M. K., & Vivian, D. (1999). Is partner aggression related to appraisals of coercive control by a partner?. *Journal of Family Violence*, 14(3), 251-266.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orton & Company.
- Farwell, L., & Wohlwend-Lloyd, R. (1998). Narcissistic processes: Optimistic expectations, favorable self evaluations, and self-enhancing attributions. *Journal of Personality*, 66(1), 65-83.
- Feldman, S., & Downey, G. (1994).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1), 231-247.
- Foo, L., & Margolin, G. (1995). A multivariate investigation of dating aggress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4), 351-377.
- Fourie, D. P. (2010). Narcissistic Behaviour and the Successful Conservation of Ambivalence. *Psychological Reports*, 106(1), 217-230.
- Green, A., MacLean, R., & Charles, K. (2020). Unmasking gender differences in narcissism within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7(1), 110-247.

- Greenberg, L. S., & Paivio, S. C. (2003). *Working with emotions in psychotherapy* (Vol. 13). Guilford Press.
- Kahya, Y. (2021). Intimate partner violence victimization and perpetration in a Turkish female sample: Rejection sensitivity and hostilit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6*(7-8), 4389-4412.
- Kohut, H. (2009). *The restoration of the self*. University of Chicago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77).
- Leary, M. R., Twenge, J. M., & Quinlivan, E. (2006). Interpersonal rejection as a determinant of anger and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2), 111-132.
- Levy, S. R., Ayduk, O., & Downey, G. (2001). The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people's relationships with significant others and valued social groups. *Interpersonal Rejection, 10*, 251-289.
- Morf, C. C., & Rhodewalt, F. (1993). Narcissism and self-evaluation maintenance: Explorations in object rel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6), 668-676.
- Morf, C. C., & Rhodewalt, F. (2001). Expanding the dynamic self-regulatory processing model of narcissism: Research directions for the future. *Psychological Inquiry, 12*(4), 243-251.
- Neufeld, J., Mcnamara, J. R., & Ertl, M. (1999). Incidence and prevalence of dating partner abuse and its relationship to dating practic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4*(2), 125-137.
- O'Keefe, M. (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tuden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4), 546-568.
- O'Leary, J. & Wright, F. (1986). Shame and Gender Issues in Pathological Narcissism. *Psychoanalysis Psychology, 3*(4), 327-339.
- Pincus, A. L., & Lukowitsky, M. R. (2010). Pathological narcissism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6*, 421-446.
- Pincus, A. L., Ansell, E. B., Pimentel, C. A., Cain, N. M., Wright, A. G., & Levy, K. N. (2009). Initial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the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21*(3), 365-379.
- Pincus, A. L., Cain, N. M., & Wright, A. G. (2014). Narcissistic grandiosity and narcissistic vulnerability in psychotherapy.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5*(4), 439-443.
- Roscoe, B., & Benaske, N. (1985). Courtship violence experienced by abused wives. *Family Relations, 34*(3), 419-424.
- Stead, L., Brewer, G., Gardner, K., & Khan, R. (2022). Sexual coercion perpetration and victimisation in females: The influence of borderline and histrionic personality traits, rejection sensitivity, and love styles.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28*(1), 15-27.
- Stets, J. E. (1992). Interactive processes in dating aggression: A national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1), 165-177.
- Straus, M. A., Hamby, S. L., McCoy, B.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2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Street, A. E., & Arias, I. (2001). Psychological abuse an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in battered women: Examining the roles of shame and guilt. *Violence and Victims, 16*(1), 65-78.
- Twenge, J. M., & Campbell, W. K. (2003). "Isn't it fun to get the respect that we're going to deserve?" Narcissism, social rejection, and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2), 261-272.
- Wardetzki, B. (2006). 여자의 심리학: 자신감과 열등감 사이에서 방황하는 당신을 위한 심리분석[*Weiblicher Narzissmus: der Hunger nach Anerkennung*] (강희진 역). 북폴리오. (원전은 2000에 출판).
- Warkentin, J. B. (2008). *Dating violence and sexual assault among college men: Co-occurrence, predictors, and differentiating factors*. Ohio University.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0). *Preventing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Taking action and generating evidence*. World Health Organization.
- Wright, A. G. C., Lukowitsky, M. R., Pincus, A. L., & Conroy, D. E. (2010). The higher-order factor structure and gender invariance of the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Assessment, 17*(4), 467-483.
- Zeigler-Hill, V., & Wallace, M. T. (2012). Self-esteem instability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Self and Identity, 11*(3), 317-342.

논문 투고일 : 2023. 09. 08

1 차 심사일 : 2023. 09. 22

2 차 심사일 : 2023. 10. 24

게재 확정일 : 2023. 11. 06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on the Effects of Pathological Narcissism on Dating Violence: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

Dan Bee Choi

Ho In Kwon

Jeonj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in pathological narcissism and dating violence, and to verify whether there is a gender difference in each variable, further examining the gender difference in the mediating pathway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381 men and women in 20s living across the country, and online self-report surveys was conducted regarding their experiences of pathological narcissism, rejection sensitivity, and four types of dating violence. As a result of verifying gender differences, it was found that women had a higher vulnerability to narcissism, rejection sensitivity and committed more psychological violence, sexual violence, and controlling behavior than men. As a result of the mediat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rejection sensitivity partial mediated the effect of pathological narcissism on psychological violence and control behavior, but it showed a complete mediation effect on sexual violence. And there was no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between pathological narcissism and physical violence.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in this mediating pathways,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gender was verified in the effect of narcissistic grandiosity and narcissistic vulnerability on control behavior through rejection sensitivity. These results show that pathological narcissism promotes psychological and sexual violence in both men and women, and rejection sensitivity acts as a mediator in this process. In addition, the effect of pathological narcissism on the control behaviors through rejection sensitivity was significantly higher in women than in men, indicating that there are gender differences in the mediated pathways.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narcissistic grandiosity, narcissistic vulnerability, dating violence, rejection sensitivity, gender difference